

영국도 입추가 지나면서 아침저녁 훅쩍 선선한 바람이 느껴진다. 영국의 여름은 맑은 날씨와 바람 덕에 상쾌하다. 아직 여름의 끝 휴가철이라 런던 시내에는 온통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덕분에 시내 서점들도 비교적 한산한 편이다. 사실 어느 때도 서점이 북새통인 적은 없다. 여유 있는 공간이 책을 보기에 쾌적하다. 하지만 속사정은 좀 쓰리다.

국내처럼 이곳도 도서매출 급강하에 따른 위기 국면이 언급되곤 한다. 어쨌든 불경기의 조짐은 맨 먼저 출판전선에 부상병이 속출하면서 나타나게 마련이다. 지난주 한 만화엔 죽은 다이애나비의 전기를 출간한 출판사 직원들이 판매호조에 서로 얼싸안고 영영 우는 장면을 과장되게 그렸다. 평소 같으면 그저 점잖게 웃으며 악수나 할 정도의 일에 그렇듯 온몸으로 감격해한다는 풍자다.

5천억대에서 단돈 1파운드까지 선인세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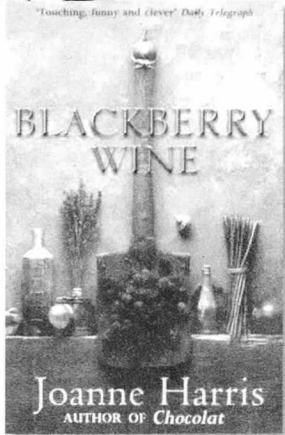
베스트셀러 작가는 밀리언셀러에 화려하게 등극하지만 대부분 무명 작가들은 그저 초라하기만 하다. 출판사들마다 잘 나가는 작가를 잡기 위해 선인세 경쟁으로 출혈한다. 얼마 전 《가디언》지는 이제까지 고액 선인세를 받은 작가의 순위별 리스트를 공개했다. 무려 3억파운드(약 5천5백억원)라는 최고액을 받은 주인공은 어린이들의 영원한 친구인 A. A. 밀네의 《위니 더 푸》. 월트 디즈니사가 영화판권 분야를 사들였다. 문학사상 가장 짧은 분량을 가장 높은 가격에 계약해 캐릭터의 위대함을 증명했다.

미국 서스펜스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메리 히긴스 클라크는 사이먼 앤 슈스터에 5권에 대한 선인세로 4천5백만 파운드를 받았고, 톰 클랜시는 펄컨 퍼트남에 3천2백만 파운드, 마이클 클라이튼은 32년간 관계를 맺어온 알프레드 A. 크노프사와 중지부를 찍고 하퍼콜린스에서 2천7백만 파운드를 받아 챙겼다. 미국

극심한 인세 빈부격차로 작가들 희비 엇갈려

고액 인세와 낮은 통폐합, 할인요구로 침체 늪 빠져

김지원 | 출판칼럼니스트



연속해서 베스트셀러를 터뜨린 조안 해리스(위)와 그의 《블랙베리 와인》.

제너럴 일렉트릭(GE)사 회장 잭 웰치는 자서전 출간에 4천5백만 파운드를 받아 비소설 분야에선 단연 두

드러지고, 모니카 르윈스키와 그의 회고를 쓴 작가 안드루 모튼이 43만 파운드로 비교적 고액 선인세다.

그런가 하면 세계적인 영국 베스트셀러 작가 J. K. 롤링은 첫 책에 고작 2천5백 파운드를 받았을 뿐이다.

“지금 롤링은 어떤 가격을 요구해도 되는 세계 최고의 대형 브랜드”지만, 해리 포터의 판권은 처음 이렇듯 푸대접을 받았다. 또 단돈 1파운드(약 1800원)의 선인세를 받은 작가도 있다. 지난달 영국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았던 제프리 아처가 그 주인공이다. 1985년 보수당 고위 당료를 지낸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 1987년에 열린 재판에서 추문에 관련해 위증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끝내 감옥행을 했다. “나는 돈 때문에 책을 쓰지 않는다”며 호더 앤 스타우튼에게 1파운드 값에 5권의 책을 팔았는데, 사실은 그해 세금을 너무 많이 낼까봐 영악하게 처세한 치기어린 발언일 뿐이었다.

고액 인세와 출판사들의 낮은 통폐합, 소매

상들의 할인요구 등이 불경기의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동안 약진한 책들도 많다. 《선데이 타임스》의 별책 《플레이》가 상반기 베스트셀러를 결산했다.

영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조안 해리스

소설 분야에선 헬렌 필딩의 《브리짓 존스의 일기》와 조안 해리스의 《초콜릿》 그리고 존 그리샴의 《동업자》가 나란히 상위에 올랐고, 니콜라스 케이지 출연으로 영화화된 루이드 베르니에레의 《코렐리 대위의 만돌린》과, 다문화적인 런던의 모습을 스냅사진 찍듯 그려내 화이트브레드 문학상을 수상한 자디에스미스의 《하얀 이》도 수위를 차지한다. 특히 조안 해리스의 작품은 줄리에트 비노쉬와 조니 뎀이 출연한 영화 《초콜릿》으로 상승세고 《블랙베리 와인》 등 일련의 작품까지 베스트셀러에 올라 올해는 조안 해리스의 해라 할 만하다. 여행서 분야에선 미국 여행작가 빌 브라이슨의 《작은 섬의 기록》이 작가의 유명세와 함께 여전한 수위를 지킨다.

영국인들이 즐겨 읽는 전기, 자서전 분야에선 끄적했던 어린시절을 돌아본 데이브 필치의 전기물 세편이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해 특기할 만하다. 역사 분야는 사이먼 셰마의 《영국 역사》와 2차 세계대전 중 요크셔 가족의 생활을 기록한 《1940년대 집》 등이 올라 있고, 《엘리자베스》나 《헨리 8세》 같은 최근 책들도 인기를 끌고 있어, 자국 중심의 역사서 읽기 경향이 엇보인다. ■